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433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안일자 : 2020년 4월 3일
- 라. 회부일자 : 2020년 4월 8일

2. 제안이유

- 문화시설추진단과 지역발전본부 등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미디어재단 신설에 따라 폐지된 교통방송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1년씩 연장함(안 부칙 제2조)
 - 1) 지역발전본부 : 2020년 6월 30일 → 2021년 6월 30일까지
 - 2) 문화시설추진단 : 2020년 8월 18일 → 2021년 8월 18일까지
- 나. 교통방송 폐지('20. 2. 17.字)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안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한시기구인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을 각각 1년씩 연장하고,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가 신설됨에 따라 폐지되는 교통방송(2020.2.17.字)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제출되었음.

나. 한시기구의 운영현황(안 부칙 제2조 관련)

- 한시기구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기구로¹⁾, 서울시는 현재 ‘지역발전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남북협력추진단’의 3개 기구를 한시기구로 운영하고 있음.

<서울시 한시기구 운영 현황>

부서명	존속기한	주요업무
지역발전본부	2016.07.01~2020.06.30	서울의 성장 동력 육성과 신경제 중심지 조성
문화시설추진단	2016.08.19~2020.08.18	문화 향유권 회복 및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남북협력추진단	2018.11.01~2020.10.31	서울-평양 도시교류를 통해 통일기반조성을 강화하고 민간·정부·지자체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추진

- 이번에 1년씩 존속기한 연장을 요청한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추진단’은 서울권역별 경제중심지 조성 및 문화시설 확대 등에 기여해 오고 있음.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 지역발전본부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거점 개발과 서울국제교류복합 지구 조성, ▶동북부 일자리·문화,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 ▶마곡 융·복합 첨단 R&D 혁신거점 구축, ▶수색·DMC역 일대 미래산업 중심지 조성을 목표로 4대 권역, 총 3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문화시설추진단은 ▶박물관·미술관 조성, ▶지역균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문화인프라 확충, ▶권역별 특화된 시립도서관 건립 등 총 46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다. 존속기한 연장의 필요성

- 개정안은 오는 6월과 8월에 존속기한이 각각 만료되는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을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 해당기구들은 2016년 한시기구로 신설된 이후 매년 존속기한을 1년씩 연장하고 있으며 이번에 연장하게 되면 4회차에 해당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기구·정원규정”)에 따르면 한시기구는 3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존속기한을 정해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하여 존속기한을 연장(최장 6년)할 수 있음.
-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1년

단위로 한시기구의 성과목표를 평가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 거쳐 연장을 해오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각각 1년간 연장승인 하면서 ‘지역발전본부’의 존속기한이 만료(2021.6.30.)되는 즉시 폐지하도록 조건부 승인하였음[참고자료].

- 이는 자율신설기구를 통해 한시기구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기구와 임시기구를 정비하도록 유도하였으나, 서울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점진적 폐지를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했음²⁾.

- 그러나 서울의 성장동력 육성과 신경제 중심지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본부’의 주요 사업공정이 2025년 이후 까지 지속될 예정이고, 46개의 박물관·미술관·문화시설의 건립과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시설추진단’의 경우도 2025년까지 34개 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존속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해 보이며, 매년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서울시의 중·장기적 경제·문화생태계 구축과 문화 SOC사업의 안정적 확충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규기구로의 편제 등 특단의 조치가 요구됨.

- 이와 함께 시장방침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4개의 범외기구

2) 자율신설기구 설치 후 17개 시·도에서 한시기구를 운영 중인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3개)와 세종시(1개) 외에는 없음.

(임시기구)에 대해서도 정규기구화 등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임시기구 운영 현황〉

부서명	설치일자	주요업무
국제협력관	2013.12.02.	국제교류·협력 총괄·조정, 우수정책 해외교류 전략 수립,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운용 등
대기기획관	2011.11.29.	대기질 개선,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차 보급 등 기후환경본부장 보좌
재생정책기획관	2012.09.28.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도시재생실장 보좌
주택기획관	2011.11.29.	주택공급 관리, 주거복지 사업 등 주택건축본부장 보좌

- 한편, 행정안전부의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임.
- 종전의 「행정기구·정원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한시기구를 설치하거나 존속기한을 연장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와 한시적 행정수요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협의’로 개정(2004.12.18.)된 바 있음.
-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대통령령의 하위지침인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으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매년 평가를 통해 연장토록 하여, 사실상의 ‘승인권한’을 유지·행사하고 있음.

- 최근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시조직 직급책정 협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의결(2019.8.23.)한 바 있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해야 할 것임[참고자료2].

라. 교통방송 관련 규정 삭제(안 제107조부터 안 제109조까지)

- 개정안은 ‘교통방송’이 서울시 출연기관인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로 신설됨에 따라 서울시 소속 기구(사업소)에서 교통방송을 삭제하고 있음.
- 교통방송은 교통정보의 신속·정확한 제공, 교통지식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수도권 일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교통문화의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장 소속의 사업소로 설치(1990.3.20.)되었음.
- 그러나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능동적 대응과 멀티미디어 콘텐츠 생산과 유통에 따른 기술혁신 요구로 조직구조와 기능, 조직문화의 혁신의 필요성과 방송의 독립성·자율성 확보문제 등이 제기되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2019.7.18.)과 함께 재단법인으로 전환되었음.
- 이에 따라 기존 교통방송 소속 직원 총 448명이 재단법인 소속의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었으며, 이 중 방송제작·지원을 담당하는 임기제공무원 148명도 일반노동자 신분으로 전환되었음.

- 교통방송 정원은 일반직공무원 16명, 임기제공무원 148명, 프리랜서 185명, 파견용역 87명, 공무직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폐지 예정인 대표직(개방형 3급)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163명의 정원은 본청 등으로 재배치될 예정임³⁾.
- 그러나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시행(2020.2.17.)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재단이 출범한 2월 임시회에서 교통방송 관련 행정기구 규정 정비를 적기에 하지 못한 문제가 있음.
- 또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지적된 서울시 출연 재원의 과도한 의존 문제⁴⁾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건부 허가 사항인 서울시로부터의 독립적인 지배구조 확립 방안⁵⁾은 향후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

마. 종합의견

- 개정안은 한시기구인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을

-
- 3) 재단법인화와 소속 직원 147명의 신분 전환에 따라 고용승계와 신규직원 채용을 위해 재단법인 직원 채용이 진행(2019.12.16.~2020.2.17.)되었음.
 - 4) 교통방송은 재단화를 추진하며 tbs라디오의 상업방송 유치 등을 통해 자체재원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광고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상업광고를 불허함에 따라 2020년 미디어재단tbs의 세입예산의 77%인 291억 1천만원(9개월분)을 서울시가 출연하고 있음.
 - 5)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시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방안과 허가 사항에 충실한 방송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6개월 이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라는 조건부 허가를 하였음(2019.12.26.).

연장하고, 미디어재단tbs의 신설과 교통방송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향후 1~2년 이내에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추진단의 폐지를 전제로 존속기한 연장을 승인했으나, 이들 기구의 사업 완료 시점은 존속기한을 경과할 것이 예상되므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의 통·폐합 등에 대한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임.
- 또한 교통방송의 폐지로 확보되는 공무원 정원은 기관별 업무량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재배분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미디어재단tbs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인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체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한편, 최근 5년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9개가 신설되었고, 마곡산업단지관리재단, 물재생시설공단의 신규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 투자·출연기관의 과도한 남설이 우려되므로 향후 신규 투자·출연기관의 설립은 사업의 공익성과 경제적 효과, 목적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임[참고자료3].

담당 조사관	연락처
최범준	02-2180-8058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21조(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장과 보조·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의 직급이 시·도에서는 3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시·군·구에서는 5급 이상(제13조제1항에 따라 실·국을 둘 수 있는 시·군·구는 4급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1]



행정안전부



수신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한시기구 연장 협의 결과 통보(서울 지역발전본부, 문화시설추진단)

1.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3719(2020.3.18.)호 및 조직담당관-3874(2020.03.20.)호와 관련됩니다.
2. 위 호와 관련, 한시기구 연장 협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기구 운영 및 제출한 기구정비계획의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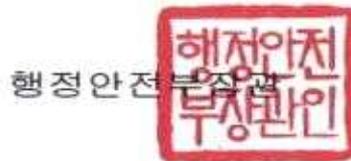
가. 협의개요

자치단체명	한시기구명	요청기한	비고
서울	지역발전본부(3급)	'20.7.1.~'22.6.30.(2년)	4차 연장
	문화시설추진단(3급)	'20.8.19.~'22.8.18.(2년)	4차 연장

나. 검토결과 : 조건부 승인(1년승인)

자치단체명	한시기구명	승인기한	비고
서울	지역발전본부(3급)	'20.7.1.~'21.6.30.(1년)	존속기한 만료 즉시 폐지
	문화시설추진단(3급)	'20.8.19.~'21.8.18.(1년)	'22년 폐지

※ 서울시가 제출한 '한시·임시기구 정비계획(추가적인 임시기구 미신설 포함)' (조직담당관-3874(2020.03.20.)호)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 끝.



주무관 이경민 행정사무관 윤보라 행정사무관 이홍원 자치분권제도과 한치홍

자치분권정책과 2020.03.23. 유인철

협조자

시행 : 자치분권제도과-944 (2020.03.23.) 접수 : 조직담당관-3902 (2020.3.23.)
 우 30116 서울특별시 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여중로, 행정안전부) / http://www.moia.go.kr
 전화 044-205-3317 / 전송 044-204-8951 / jmitau1006@mail.go.kr / 비공개(5)

자치단체 한시기구 설치 시 직급책정 협의 (행정안전부 소관)

① **기능명** : 자치단체 한시기구 설치 시 직급책정 협의(지자체기구정원규정)

< 단위 사무 >

1. 한시기구 등 설치 시 직급책정 협의 (시행령 제21조)

② **이양방향** : 국가 → 시도, 시군구

③ **기능개요**

< 주요내용 >

- 자치단체에서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한시기구 설치 운영 가능
- 시·도는 3급 이상, 시·군·구는 4급 이상 한시기구 설치 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

< 이양 필요성 >

-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따라 한시기구 설치가 필요함에도 행안부 사전협의 절차로 즉각적인 행정수요 대응 곤란
 - 지역 현안이나 자율성을 반영한 신속한 조직 구성과 운영에 한계
- 지역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자치단체 조례로 직급책정이 가능하도록 한시기구 설치 권한 이양 필요

【 위원회 심의결과 】

지방자치단체 조직 자율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지방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시조직 직급책정 협의 권한을 시도·시군구로 지방 이양 의결

[참고자료 3]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 현황>

번호	기관명	설립일자	설립목적
1	서울교통공사	2017.05.31. (지하철 양공사 통합)	서울지하철운영(1~8호선)
2	서울시설공단	1983.09.01.	서울시 주요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3	서울농수산물공사	1984.04.10.	농수산물유통원활 및 적정가격 유지
4	서울주택도시공사	1989.02.01.	택지개발공급, 주택건설·개량 공급 및 관리
5	서울의료원	1982.09.30.	진료와 의학연구를 통해 시민의 보건향상을 도모, 공공의료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사업 발전에 기여
6	서울연구원	1992.07.14.	시정 관련 각종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전문적 조사·연구
7	서울산업진흥원	1998.03.31.	서울시 산업진흥 및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8	서울신용보증재단	1999.06.07.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
9	세종문화회관	1999.07.01.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
10	서울여성가족재단	2002.01.24.	실질적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서울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11	서울복지재단	2003.12.31.	시민의 다양한 복지요구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있는 사회 복지서비스 제공
12	서울문화재단	2004.03.15.	서울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13	서울시립교향악단	2005.06.01.	시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 도시로서의 역량 가화
14	서울디자인재단	2008.12.16.	디자인산업 육성 및 디자인문화 확산
15	서울장학재단	2009.01.08.	우수인재의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과 청소년을 지원
16	서울관광재단	2018.04.23. (투자기관에서 출연 기관으로 전환)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여 도시경쟁력 확보
17	평생교육진흥원	2015.03.12.	평생교육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시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

18	50플러스재단	2016.04.28.	장년층의 은퇴전후 새로운 인생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지원
19	서울디지털재단	2016.05.25.	디지털 서울 구현을 위한 혁신그룹 '디지털 싱크탱크' 역할 수행, 디지털 산업자원을 통한 서울경제 활성화
20	서울에너지공사	2016.12.21.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 촉진
21	120다산콜재단	2017.04.24.	시민중심 맞춤형 행정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으로 시민중심의 소통행정 실현
22	공공보건의료재단	2017.07.06.	서울시 보건의료기관 운영 효율화, 질 향상 지속강화, 서울시 보건의료기관 지원 및 분야간 연계협력 강화
23	서울기술연구원	2018.03.27.	시정 관련 각종 기술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한 서울시 지속가능 발전 도모
24	서울사회서비스원	2019.02.28.	사회서비스의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함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부응
25	미디어재단tbs	2020.02.17.	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동등한 정보 접근의 보장,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